

행복한 가을 날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 Letter

01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국립암센터와 진료협력 협약체결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10월 27일 국립암센터와 진료협력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암 진료와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국립암센터와 협약을 맺게 됨에 따라 개원 1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는 '비전 2020' 실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협약은 △진료협력 △학술 정보교류 △인력교류 및 교육 훈련 △연구시설 및 기자재의 공동 활용 등을 담고 있어, 양 기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마련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오민구병원장은 "협약체결이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가져주신 원장님과 관계자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고, 협약관계를 넘어 의학발전을 선도하는 동반자적인 관계로 도약하여 협력체계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립암센터 이강현 원장은 "양 기관의 핵심가치가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하여, 암 관련 분야가 발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02 신경과 김동역 교수, '2015 계량측정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

신경과 김동역 교수는 10월 26일 충북 음성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열린 '2015 계량측정의 날' 행사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김동역 교수가 뇌혈관질환을 진단하는 참조 표준인 한국인 뇌 MR 영상지도를 개발하고 보급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김동역 교수는 2011년 한국 뇌MR영상 데이터 센터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뇌경색 뇌MR영상의 '정량화된 표준자료' 구축을 위해 연구를 계속하였고, 2015년 1월에 세계 최초로 한국인 표준 허혈 뇌지도 완성했다. 혈류가 부족한 상태를 의미하는 허혈 뇌지도는 촬영된 MRI영상을 통해 개인의 만성 허혈성 뇌손상 정도(크기·위치)가 우리나라 뇌경색 환자 기준으로 100명 중 몇 번째에 해당하는지 알려주는 것으로 특히 연령대 별로 제공되는 허혈 뇌지도도를 참조하면 만성 허혈성 뇌손상과 관련한 '뇌 건강나이'도 추정할 수 있다.

김동역 교수는 같은 과에 재직하고 있는 류위선 교수를 비롯한 전국 11개 병원 신경과 교수들과 협력하여 표준 허혈 뇌지도 참조표준 도판을 개발하였고, 전국 100여 개 병·의원에 보급하여 뇌졸중 환자 진료에 활용되도록 하였다. 이 허혈 뇌지도 도판은 뇌졸중 분야 전문가들의 호평을 받아 10월 중순 새로 발간된 뇌졸중 교과서 2판에도 수록되었다.



03 연꽃누리합창단, 제6회 찬불가합창경연대회 참가

연꽃누리합창단(지도법사 증휘 스님, 단장 이해원, 지휘 김성민, 반주 이다솔)은 10월 25일 더 케이아트홀에서 열린 2015 불교합창페스티벌인 '제6회 찬불가합창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아름다운 선율을 선보였다.

이번 대회는 대한불교조계종이 주최한 전국규모의 합창대회로 사찰합창단 22팀이 참석하여 그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다. 연꽃누리합창단은 작년 6월 창단한 신생합창단이지만,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얻었으며 열정과 패기를 보여준 무대였다. 합창단원들은 음성으로 부처님 공덕을 널리 전할 좋은 기회였다고 전했다.



04 2015 의료기관인증 자체평가 실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2주기 의료기관인증 후 지속적인 의료 질 관리를 위한 자체조사를 21일 실시했다.

자체적으로 조사위원을 구성해 안전보장활동과 지속적 질향상의 72개 조사항목과 2주기 의료기관인증 조사 시 권고받았던 8항목을 조사했다. 또한, △질 향상 시스템 추적조사 △시설 시스템 추적조사 △감염관리 시스템 추적조사 △환자 추적조사도 진행했다. 조사결과에서는 72개 조사항목 모두 '상'이었으며 권고 받았던 사항도 개선되어 대부분 잘 시행되고 있었다.

오민구 병원장은 "이번 자체평가를 통해 규정에 근거한 실무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해서 의료 질 관리를 노력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에는 경주병원 인증준비위원회 위원이 참관하여, 경주병원 2주기 의료기관평가를 성공적으로 획득하기 위한 준비도 함께 진행했다.



05 물류 위탁운영시스템 병원 전부서로 확대시행

물류팀은 2013년 4월 병동과 특수부서의 원내물류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데 이어 11월 1일부터 더욱 새로워진 물류시스템을 도입하여 외래를 포함한 병원 전부서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물류팀은 병동과 특수부서의 물류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업무 효율화와 신속성, 재고에 대한 안정성 확보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물류시스템을 보완하여 이번에 병원 전체로 확대하여 시행했다.

이번에 새로 적용된 물류시스템은 사용부서의 편의성을 증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부서에서 청구하지 않아도 적정량을 위탁업체 배송하는 업무의 편의성과 동시에 진료에 필요한 재료를 즉시 제공하는 업무 표준화를 이루는 데 성공했다. 또한, 수술실과 특수부서의 진료재료 사용에 대한 처리와 검수작업을 전산화하여 데이터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



06 2015년도 전 교,직원 독감 예방접종 시행

감염관리실은 직원건강과 감염예방을 위해 10월 26일과 27일 양일간 독감 백신 접종을 시행했다. 독감을 독한 감기로 여기는 사람이 있지만, 독감은 감기와 엄연히 다른 병이다. 감기는 라이노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등 수십 여종의 바이러스에 의해 코, 목 또는 기관지 등 상기도의 상피세포가 감염되는 것이고,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전염성이 강하고 두통, 발열, 오한, 근육통과 같은 전신증상과 기침, 인후통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며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걸리게 되면 치명적이다.

감기는 바이러스 종류가 많아 예방 백신이 없으나, 독감은 백신접종으로 70~90%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면역력이 약한 소아, 노인, 만성질환자, 임산부 그리고 환자를 대하는 의료인들은 매년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 이전에(10월 중순 ~ 11월 중순)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



07 동국대학교병원 자원봉사자 가을야유회 다녀와

사회사업실은 동국대학교병원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10월 23일 양평 세미원으로 가을 야유회를 다녀왔다. 야유회는 병원 곳곳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 보람차고 활기찬 자원봉사활동이 되도록 매년 병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날은 연꽃향기 가득한 세미원을 지나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를 걸으며 가을의 정취를 느꼈고, 자원봉사자 모두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단합을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야유회에 참여한 한 자원봉사자는 "병원이 아닌 야외에서 단합의 시간을 가지니 동국대병원 자원봉사자라는 소속감과 자부심이 생겼다."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10월 친절간호사



81병동 심정진 간호사

미소를 지으며 조곤조곤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는 모습과 같이 일하는 직원들을 지지해주고 배려해주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밥은 먹고 일하는지', '일하는데 힘들지 않는지' 등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써 주시는 모습은 감동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후배들의 좋은 본보기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 리 미

2015년 환자안전의 날 사진전시회

일시 : 2015. 11. 2.(월)~11. 6.(금) | 장소 : 동국대학교일산병원 1층 로비

2015년 환자안전의 날

일시 : 2015. 11. 6.(금) 16:00 | 장소 : 동국대학교일산병원 5층 대강당